

時 論



윤우영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지난해 포천 반월아트홀의 개관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오지로 불려지던 포천에 문화예술의 새로운 기대감이 일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포천시는 올바른 운영방안을 수립했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첫 해에 모든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반월아트홀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예술 센터로 자리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연예술의 사대주의이며 의정부 예술의 전당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복사하는 결과로 과연 포천시에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이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반월아트홀의 운영도 공연예술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정부의 경우 예술의 전당이 전문기관이라는 분의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다. 여러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2002년과 200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지역의 공연장보다도 더 많은 공연이 행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일견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렇지만 그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기쁘게 할 때 그 지역 예술가들이나 단체들은 소외되어 있었다. 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타이틀이었기 때문이다. 대외 과시적인 행사나 공연이 과연 지역민이나 예술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점도 그대로 포천에 복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년 사업비 중에서 최소한 30퍼센트 이상이 지역단체들에게 투자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축제의 의미는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지역문화의 발굴도 포함할 수 있다. 경기도내에는 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 행사 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포천시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현재 있는 축제와 앞으로 만들어질 축제를 위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만든다면 당연히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아 축제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내의 많은 축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관의 일방적인 주도나 타지역에서 파견된 소수 행사 관계자들의 엘리트 의식과 대외적인 과시욕으로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민들의 소외 및 무관심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예산난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일부 행사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타산지석의 귀중한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포천시의 반월아트홀 운영과 문화사대주의

잡고 원활한 운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자 적어보려 한다.

지역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반월아트홀이 기획했던 지난 일년의 행사가 공연을 돌아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공연들이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단체들에 의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서울에서 지원 받고 공연한 작품들이 의정부를 거쳐 다시 포천에서 공연되어지는 어이없는 사례들로 가득했다. 더욱이 서울의 단체들이 포천시를 위해서 무료로 공연한 것도 아니다. 포천의 기획공연으로 편당 2천만원대 이상의 돈을 받아가며 공연을 하였다. 지역 예술가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시민들은 고급 공연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또한 지역 예술가들은 그 수준을 높여야 할 책임도 있다. 그렇지만 운영당사자들이 서울의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했다고 자랑스런위하고 있을 때 지역의 예술가들과 예술단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역 예술가들이 부재한 지역 예술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반월아트홀의 일년 기획비를 대략 3억원(일례)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돈이 서울의 단체들에게 뿌려지고

되어야 할 것이다. 꾸준한 투자 속에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것이고 투자액을 높여갈수록 그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고 할 수 있다. 먼 안목을 가지고 꾸준한 관심과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역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연습실 및 기획실을 수도권 및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다. 양주, 벽제, 남양주, 양평, 밀양 등에 분거지를 둔 단체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단체들은 그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포천은 경기도의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시립예술단이 만들어져 타지역 사람들의 놀라움과 부러움을 샀다. 재정이 넉넉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시립예술단을 만든 의의는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런 파이오니어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타 예술단체들에게도 관심을 돌려야 할 때이다. 시립 예술단을 더 만들어야 하나나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관심을 갖고 서울의 예술단체들에게 뿌리는 돈의 일부를 지역 예술가들이나 단체들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행사 참가자들의 문제점이다. 앞서 반월아트홀의 기획공연 문제에서 밝힌바 있듯이 행사에 초청된 서울의 단체들과 지역 단체들 간의 차별에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 모 축제를 예를 들면 서울의 단체는 2천만원대 이상의 지원을 받으며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데 지역 예술 단체들은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의 예술가들을 들러리로 소외시키는 것은 지역 축제의 의미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일년이 조금 넘었지만 포천시 승격과 포천 반월아트홀 개관의 기쁨으로 포천 시민들은 시민의식이 충만해 있다. 이미 틀이 잡혀 있는 어느 도시보다도 포천은 면적도 넓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꾸꾸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장 많은 도시이다. 문화예술면에서 예술대학이 있는 도시이며 자원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포천 반월아트홀은 지역 예술을 위한 포럼이나 모임을 자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포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게 하며 확실화된 서울 문화예술의 직수입을 탈피하고 다른 지역에서 행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바램이다.

자 유 기 고 ●●● 우리민족의 사랑 조선경국전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고 임금의 하늘이다'



이호종 포천한시사 대표

조선경국전이란 이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개국의 이념과 통치철학을 명문화하여 극명하게 제시한 500년 사직의 마스터플랜이다. 조선경국전이 간행된 시기가 14세기말인데 이 시기에 지구상에서 이토록 뚜렷한 건국이념과 통치철학을 명문으로 밝히면서 출범한 국가가 없었다. 이는 조선왕국의 설계자 삼봉 정도전(三峰 鄭道傳)이 찬진(撰進)한 것이다. 이 경국전은 군도(君道)와 치도(治道)에 대한 것을 저술한 것으로 민심은 천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얻은 덕이 있는 사람이면 천명(天命)을 받아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만일 군왕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 천명이 덕 없는 통치자로부터 덕 있는 통치자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조선경국전에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백성(民)과 나라(國)의 관계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고 임금의 하늘이다.' 14세기에 이처럼 주창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밖에 없었다. 임금을 대통령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현대 민주국가의 정치 원리에서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 손색이 없는 명제요 진리인 것이다. 서양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뛰어난 정치사상가인 니콜라 마키아벨리(1466~1527)가 있었다. 정도전과 마키아벨리는 다같이 현실 정치에 입각해서 주장을 펼친 현실주의적 정치사상가이다. 정도전은 백성을 위한 윤리적 민본(民本) 정치사상을 전개시켰다고 한다면 마키아벨리

는 군주를 위한 국가 이성의 비윤리적 내지는 탈 윤리적 정치사상을 내세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도전은 14세기 사람이요 마키아벨리는 16세기 사람이다. 15, 16세기에 서양에서도 정도전에 비길 만큼 민주정치의 이념을 주장한 스케일이 큰 정치사상가는 없었다. 서양에서 마키아벨리를 최상의 정치사상가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 조선왕국의 정치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 왕조가 500년씩이나 고구려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예는 어느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인류 역사상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일로서 실로 찬탄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긍정적인 요소는 조선경국전에 명시된 도덕적인 정당성과 윤리적인 합리성이 실천된 것이기 때문이다. 강상(綱常)과 윤기(倫紀)를 떠나 어떠한 무력으로 위협하여 국가를 지탱한다 하더라도 한 세대를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예는 세계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나 왕조사적으로나 고려와 조선왕조의 교체는 하나의 역성혁명이며, 사상적 측면에서 본다면 고려왕조에서 조선왕조로의 교체는 보수 불교사상과 신흥 유학인 성리학의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는 바로 이 성리학을 건국이념과 통치철학을 내세우며 등장하였다. 개국이념과 조선을 건국하는 기본정책을 밝힌 것이 정도전에 의해 추진된 조선경국전이다. 성리학의 기본적인 이념을 요약하면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이다. 조선왕조는 이 오상을 이념으로 삼고 통치철학으로 삼은 것이다. 이 이념과 통치철학을 살펴보면 우리의 문화유산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 유산이란 다른 아닌 조선조의 수도인 한양에 경복궁을 세우고 동서남북에 4대문을 설치하였다. 우리가 동대문이라고 속칭하는 흥인지문(興仁門), 속칭 서대문은 돈의문(敦義門), 속칭 북대문은 숭례문(崇禮門), 속칭 북문은 홍지문(弘智門)이다. 그리고 종로 네거리에는 보신각(普信

閣)을 세우고 여기에 종을 매달고 이 종을 울리는 것에 맞추어 인의예지의 4대문을 열고 닫았다. 인간의 참다운 본성의 최고의 가치를 사방의 각 대문 이 하나씩 현창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의 건국이념과 통치철학이 이렇게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생 조선국은 무력으로서가 아니라 인의예지신으로 백성을 다스려 나가겠다고 하는 통치자의 확고한 의지가 이렇게 표명된 것이다. 참으로 차원 높은 개국의 변이 아닐 수 없다. 보신각의 종을 흔히 절에 있는 어느 종들과 다름없이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우선 이 세상의 모든 종은 종잡이 마음대로 칠 수 있지만 보신각 종은 몇 번 울리느냐 하는 것은 엄격한 규정이 있다. 한 밤이 되어 4대문을 닫는 인정은 28번을 쳤다. 28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별자리 28수에서 나온 것이고 새벽이 되어 4대문을 여는 파루는 33번을 쳤다. 이 33이라는 숫자는 동양 고대의 우주관을 반영하여 옛날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 8계곡위에 하늘이 있고 그 가운데 이 모두를 지휘하는 하늘의 견성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모두 합치면 33이 된다. 33이란 곧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시 2천만 민족 전체의 뜻을 표현한다는 것을 함축한 것이다. 그러면 당시 이 종이 33번 울릴 때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 신생국가인 조선은 무력이 아닌 인의예지신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할 것을 33천 곧 우주 전체에 맹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자의 의지가 종이 울릴 때 마다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14세기말 이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 어떤 전체 군주가 이렇게 거룩한 건국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등장한 예가 없다. 조선왕조가 500년이나 사직이 유지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도덕적 정당성과 윤리적 합리성 위에서 출발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이념과 철학이 상당기간 실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교문화가 크게 발달하여 수많은 문화자, 충신, 열사, 명인들이 배출되어 한민족의 우수성이 발휘되었다. 세계의 유일한 조선왕조실록과

조선경국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역사에 대한 외경심(畏敬心)을 갖고 옳은 일은 오래 전하여 실행해 하고 옳지 않은 일은 되풀이 하지 않게 하여 살아왔기에 우리를 예의바른 민족이라 하여 예의 동방이라는 지칭을 받아왔다. 그런데 근세에 와서 무분별한 외래 사상의 유입으로 우리 역사를 소홀히 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족혼이 사라지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삼연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수 민족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국민소득 만불을 이루어 세계의 각광을 받았다. 우리와 같이 만불 소득을 이룬 다른 나라들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여 국민소득이 배 이상 늘었는데 우리는 십유년만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된 까닭을 지난 10월 중순경 일간신문에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기사가 대서특필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우리 모두 대오 각성하여야 하겠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노사협력체제는 93개국 중 92위이고, 정치인의 신뢰도는 104개국 중 85위로 조사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력은 작년의 23위에서 11위가 떨어져 39개국 중 35위이며 은행의 건전성은 77위로 기록되어 있다. 매일같이 거리를 누비는 사업 투쟁과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 조상왕조실록을 좀 읽어 옛 우리 정치인들의 선비정신을 배웠으면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우리의 국가교육을 말할만 후유증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국민들의 머리는 세계의 최상위이다. 국가경쟁력에서 ▶정보통신분야 인터넷사용자 분야는 조사대상 104개국중 2위 ▶학교에서 인터넷 접속속도 3위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품질 3위 ▶기업의 R&D 투자 14위로 기록되어 있다. 두뇌를 쓰는 데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머리는 좋은 데 역사를 배우지 않아 강상(綱常)과 윤기(倫紀)를 잃어 국가관이 정립되지 않아 산업이나 정치 발전이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사관을 정립하여 대한민국의 긍지를 살리자.

CST 개강 안내

손으로 이룸다움을 이루는 세상 CranIo-Sacral-Therapy



CST요법이란, 미국과 유럽의 상류층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요법으로서 Beauty&Health Care의 최상의 시스템입니다.

두개골 요법이란,

두개골 요법을 통해 스틸포인트(still point)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세요. 스틸포인트는 뇌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게 하는 신비로운 접촉을 통해 유도되는 스틸포인트는 인체의 가장 깊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고요함으로, 건강을 향해 힘차게 노력하는 자기치유 능력의 배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체의 모든 생리작용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뇌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까지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건강은 몸의 건강이요 마음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맹점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체의학으로 CST는 때마침 왔습니다. 원인불명의 통증증후군이나 질환의 원인을 설명하고 검사와 함께 그 효능 효과까지 제시해 줍니다. 이미 의료전문인들과 카이로프랙티카, 물리치료사, 간호사, 안마요법사, 신체요법사 그리고 피부관리사, 심지어 일반인들에게 의해서도 매우 섬세하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테크닉입니다.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두개골 요법을 탐구하십시오.

부드러운 손의 감촉과 예민한 촉진력, 열린 마음의 조화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신비롭고 그로테스크한 세계를 보여줄 것이며 놀라움 더불어 스틸포인트의 세계로 순식간에 빨려들 것 입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어려운 학문을 쉽게 풀어가게 김선에 선생님의 열정적인 이론 강의와 동시에 임상체험까지 직접 그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몸에 배인 CST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미국 미시간 의과대학 Dr.Upledger가 저술한 두개골요법을 번역 출판한 김선에 님을 모시고 CST의 세계로 여행할 것입니다.